

전남도 조선업 인력 양성 팔 걸었다

삼호·대한조선 등 수주 7배 늘어 인력양성사업 37억원 추가 확보 채용 연계 교육·훈련 수당 지급 연말까지 전문인력 1166명 양성

전남도내 현대삼호와 대한조선의 수출 실적이 급증하면서 전남도가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관련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고, 전남도는 인력을 양성해 제때 이들이 채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대삼호가 33척, 대한조선이 11척 등 44척을 수주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발주량은 같은 기간 192%가 높아졌으며,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4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내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수주 잔량이 106척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정부 2차 추경에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으로 37억4700만원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한 생산인력 양성 채용연계 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은 조선업 수주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면서 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 증액 반영에 따라 생산기술 교육과 함께 채용연계에 중점을 두고 조선업종 채용예정자에게 훈련수당도 지원된다.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주관으로 연말까지 ▲선체 블록제작 ▲선박 부분품 제작설치 ▲전기제어 시스템 ▲기관기계장비 설치기술 ▲파이프라인 제작설치 등 5개 과정을 집중 운영, 660명을 교육해 491명의 채용을 지원하게 된다. 도내 조선업 구직 희망자는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수료 후 채용 시 2개월간 월 100만원의 훈련수당이 지원된다. 이밖에 전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조선업 신규인력 양성과 유입을 위해 2019년부터 '조선업 기능인력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생은 도와 고용노동부로부터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고,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등에서 용접, 전기 등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인원은 230명으로 이중 130명이 취업했다. 연말까지 110여명을 추가 양성할 예정이다.

'위기지역 청년일자리 지원', '조선해양 친환경특화기술 공유플랫폼'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올해 말까지 총 1166명의 조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남도 자체수요 조사 결과 올해 말까지 도내 조선업 추가 필요인력은 1200명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용접, 도장, 배관 등 생산인력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조선산업 슈퍼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당장 수주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생산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채용 연계형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친환경 선박 전문 엔지니어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전문 비계인력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진도 모사마을-재경고군면향우회 자매결연



진도 모사마을과 재경고군면향우회가 최근 향토사랑과 향우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교류 협력해 고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여촌 뉴딜 300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사마을은 향우회에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우수 수산물, 휴식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향우회는 마을 특산물 구입, 마을 홍보 등에 나서게 된다. 또 모사마을은 향우회원들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는 한편 마을에 투자할 경우 마을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도, 105억 들여 학교 우유급식 확대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3월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교까지 우유급식 무상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국비 11억원을 추가 확보, 시·군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이는 전남도가 초등학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이로써 전남도는 올해 국비 63억원, 지방비 42억원 등 총 사업비 105억원을 들여 초등학교를 포함한 중·고등학교 등 총 853개교 13만2000여 학생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5만7000명에게 61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무상지원 대상은 학생수 240인 이하 학교, 도서벽지학교, 다자녀 가족 자녀, 저소득층 학생이었다. 올해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240인

이하 중·고교, 도서벽지 학교, 3자녀 이상 가구 학생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남도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군, 교육청, 낙농우유협회 전남도지회 등과 수차례 협의했다. 지난 2월에는 전남도의회에서 발의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의결됐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초등학교 전체 무상 우유급식은 필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학생들의 성장기 발육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유 소비 확대로 낙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 피해 양식어가 재난지원금 13일까지 신청

전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를 돕기 위한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따라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13일까지 접수할 4차 바우처는 50만원권 수협 선불카드 2매로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양식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참돔, 농성어, 감성돔, 민물장어, 미역 등 22종을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양식어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양식장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해 최종 확정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전남도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수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2차 신청자 중 88명에게 지급을 마치고, 현재 3차 신청자 504명을 심사 중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4차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양식어가의 경영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품목을 양식중인 어가들이 재난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농업테마공원 '블루 투어' 논 그림 눈길



전남농업박물관 농업테마공원의 벼 한 살이 체험장에 조성된 논 그림이 멋진 경관을 만들어 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10일 농업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6월 농업테마공원 내 7012㎡ 규모의 논에 모내기하면서 '블루 투어' 문구를 새겨 넣었다. '블루 투어'는 전남도 민선 7기 핵심사업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의 관광 분야로, 전남의 친환경 먹거리와 청정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행을 뜻한다.

이같은 논 그림은 농업테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내기 후 벼의 생장을 관찰하는 것은 물론 전남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업박물관은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도정방침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문구를 새겨 넣는 논 그림 연출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임영호 관장은 "베이삭이 패기전인 8월은 질은 녹색바탕에 암갈색으로 연출된 논 그림이 가장 아름답고 선명한 시기"라며 "벼 수확 전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감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온라인 체험여행' 日 관광객들에 인기

썩떡·조각보 만들기 등 체험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일본 현지 관광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랜선 라이브 전남 온라인 체험여행'을 인기리에 운영했다. 체험 여행은 온라인을 통해 전남의 이색체험을 실시간으로 배우고 관광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일본의 한국여행 전문업체와 전남지역 여행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전남도는 체험여행 상품 운영 시 필요한 재료는 전남 현지에서 구매해 일본 참가자에게 배송함으로써 참여자의 관광 소비를 통한 지역 관광 부가가치 창출에도 보탬이 되도록 기획했다.

온라인 여행 상품은 썩떡 만들기, 전통 조각보 가방 만들기, 꽃차 체험, 3회차로 구성했다. 지역 명인이 직접 체험을 선보이고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썩떡 만들기 체험 상품의 경우

2018년 목포음식 명인 인증을 받고 대한민국 한식대가 칭호를 받은 목포 박수정 시루장절구량 대표가 썩떡과 꽃송편 만들기 체험을 선보였다.

전통 조각보 체험 상품은 나주 천연염색공방 상주 작가인 정은경 작가가 한복 천을 활용한 가방 만들기로 진행했다. 서울 태생인 작가가 나주에 내려와 경험한 일과 나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내용이다. 꽃차 체험은 송희자 사단법인 꽃차문화진흥협회장과 일본에서 한국 약선요리 전문가로 활동하는 신카이 미야코 전남도 명예홍보대사가 함께 진행했다.

일본 현지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한국의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어 실제로 전남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었다"며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 전남의 아름다운 관광지, 먹거리를 맘껏 즐기고 실제 체험도 하고 싶다"고 만족도를 보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